

|오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이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 사슬이니라
잠언1:7-9

통 권 _ 제 217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7년 11월 4일

함즐함울

www.pcltv.org



담임목사 위임예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축하박수”

10월 28일 2시, 대예배실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주관 박원호목사의 위임예배가 있었다. 성홍호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위임예배는 간결하면서도 축복된 분위기 속에서 드러졌다. 김문재목사(서울신광교회)의 감사의 기도 이어 서정운목사(前장신대총장)는 “좋은 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좋은 목사란 첫째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가르치는 목사, 둘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목사라고 정의했다. 다음으로 위임국장님의 목사소개시간에 박원호 목사님의 ‘원’은 으뜸 원(元), ‘호’는 좋을 호(好)를 상징하는 것이어서 이미 이름 속에 가장 좋은 목사임이 드러나 있다며 재치 있는 소개로 성도들을 즐겁게 하였다. 서약과 선포를 한 뒤 손달익목사(서문교회)가 권면하기를 오랫동안 건강히 목회를 이끌고,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아 제시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현 장로회신학대학의 김중은 총장의 축사와

위임패수여가 있는 뒤 아름다운 특송으로 축하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모두 일어나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담임목사에게 아낌없는 축하박수를 보내면서 기뻐하였다.

예배가 끝난 뒤 지하식당에서 정성스레 준비된 다과를 나누며 축하파티를 열었다. 고등부 기악 사역팀의 은은한 연주 소리와 성도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가운데 중정에서는 목사님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케익이 준비되어 있었다. “좋은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로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 했다.

이정애 기자

사진설명: ① 많은 성도들의 참여속에 은혜롭게 드러진 위임예배 ② 박원호 담임목사의 위임선서 ③ 설교말씀을 전하는 서정운 목사(前장신대총장) ④ 케익의 축복을 끄는 박원호 목사와 신호순 사모 ⑤ 예배가 끝난후 간단한 다과를 나누며 교제하는 성도들의 모습





“믿음의 터전”

민수기 14:1~3, 히브리서11:1~6

그림: 임지영(청년부) / 구성: 김유경(30CUP) / 법정자문: 송방애(30CUP)

지금부터 한 크리스찬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사들께서 기소 요지 진술 후
피고가 변호 하십시오.



프로이드 검사입니다.
기독교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약해지거나
병이 생기면 현실을 도피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을 만들어
의지하곤 하죠.

기독교의 하나님이란 바로
이런 정신분열증 현상입니다.
저는 정신 분석학에 근거해서
기독교를 고발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되 우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돈도 내 맘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믿음으로 봅니다.



데카르트 검사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인간만이
진정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가진
생각의 능력을 무시하고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온통 감정 뿐입니다.



“믿으라! 믿으라!” 기독교는 생각을 무시하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 이 인간의 존재 이유이며 증거입니다.



저도 데카르트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생각’ 은 인간의 귀한 능력이며, 생각없이 행동하는
인간 때문에 우리들은 고통당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생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깊이
묵상해서 참된 뜻을 찾기를 권고합니다.



사람은 ‘생각’ 을 뛰어 넘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이며 신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 이라고
말합니다.



아인슈타인 검사입니다.
지난 수세기동안 과학은 질병을 정복하고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신을 타파하며
편리한 삶을 살게 해줬습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강조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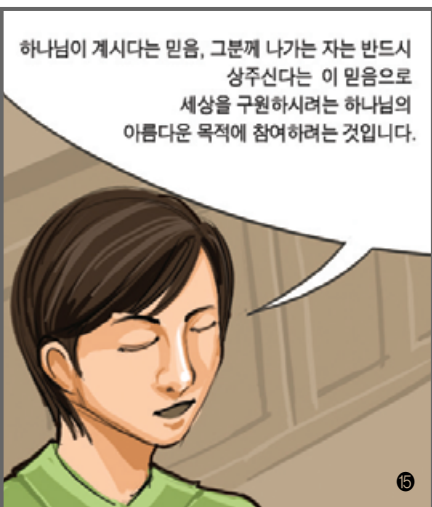
영생과 내세와 영들이 존재하는 세상이 있다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몰아갑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다시 이 땅에 질병과 미신과 가난이 만연할
것이기때 기독교를 고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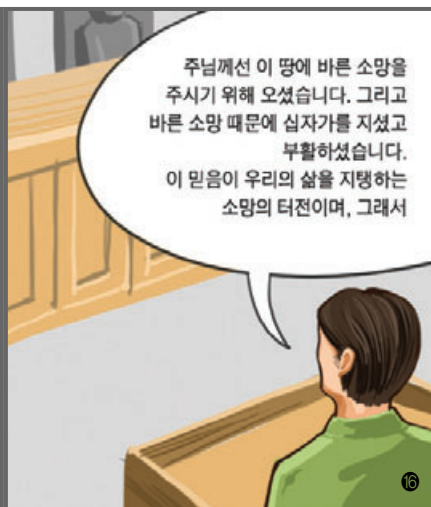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재물과 지위와 명예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분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상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에 참여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선 이 땅에 바른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른 소망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소망의 터전이며,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버릴 수가 없고, 하늘 나라의
소망을 포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크리스찬을 유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역모임

1교구 11구역의 구역 예배

교회 바라다주던 남편, 세례교인이 되어...

11월 2일 한시은 집사의 집에서는 1-11구역의 구역모임이 있었다. 구역모임에 초대받아 집에 들어섰을 때에는 이미 구역모임이 시작한 후였다. 따뜻한 차 한잔과 함께 시작된 구역모임, 구역교제는 엘리야의 이야기였지만 구역장의 예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늘 가정의 이야기로 귀결되었다.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 갈멜산이 우리의 가정이 아닐까하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몇몇 집사님들이 나눈 이야기들은 신앙의 긴 경주를 달리는 구역식구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수십 년 동안 주일 출석만 하던 남편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 새가족반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 해외에 근무할 때 줄곧 교회 앞까지만 바라다주던 남편이 어느 순간 세례교인이 되어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야기 등... 부러움 반, 기쁨 반.. 그렇게 어느덧 1시간 30분이라는 시



간이 훌쩍 지나갔다. 정성 가득 담긴 비빔밥을 함께 나누며 교제의 시간은 지속되었다.

구역모임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의 유기적인 존재임을 확인하는 자리와 같다.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간절한 기도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족임에 틀림없다. 살아 움직이는 [함줄함줄]이라고나 할까?

김현령 목사

독서
세미나

자녀독서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사역팀 주관 자녀신앙교육을 위한 부모교육(독서세미나가) 지난 주일 45명의 신청자와 함께 주님의 교회 소예배실에서 시작되었다. 이 세미나는 책읽기와 성경읽기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나가는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취지로 개설되었다. 강의는 조만제 교수 등 독서지도의 전문 강사에 의한 12강좌로 구성되어있다. 강의의 내용은 “우리 아이 천재인가, 바보인가?”, “자녀 교육의 원리, 영혼을 맑게 하는 시”, “시와 자녀교육”, “하나님 우리자녀 어떻

게 키울까요?”, “자녀독서지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우리자녀 사고방식, 이대로 좋은가?”, “창조적 여가활동,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책을 재미있게 읽는 법”, “성경적인 자녀교육” 그리고 독서토론, 책읽는 젊은이에게 미래가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료자는 독서클럽을 조직하여 지속적인 책읽기와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닦아가는 과정을 계속하게 된다.

박중순 안수집사(3-9)

나의신앙이야기

다시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87세 드신 교우 아버님의 장례 위로예배에 다녀왔다. 구역식구들과 경조부원들은 충남 서천에 멀지 않은 곳을 찾아 하늘나라에서 편히 안식하는 고인의 가족을 위로했다.

고인은 정직, 성실, 착하게 8남매를 주님 안에서 다 키우신 전형적인 농부이셨다. 채장암에 걸리셔서 투병 생활 끝에 이 땅의 생을 다하셨지만 그분은 분명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았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한다. 늙어감도 마땅하며 죽음을 맞이함도 마땅하다. 하늘나라에 가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를 기도했다. 영원한 헤어짐이 아닌 유가족들이 고인을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까지 살아 계신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소망가운데 기도하며 찬송하기를 바랐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순간과도 같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간은 한 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돌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간다. 풀은 아침에 돌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린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 혹은, 강건하여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사 그렇게 기도한다. 우리들의 삶에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삶이 참 평화로울 것이다. 우리 모두는 본래 없던 존재였고 한동안 존재하다가 다시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조금은 편안할 수 있을 것이다.

신형섭 안수집사(4-18)

예수님의 모습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살전5:14)

이 세상은 강자를 원한다.
약한 사람은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강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게으른 사람,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다.
다만 그것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가의 차이이다.
이제까지 내가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나 또한 약한 사람들은 피하고 싶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53:3)

예수님의 모습이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냥 스쳐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나와는 함께 있을 수 없다고 고개를 돌렸던 사람이다.

주님!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혜숙 기자

오늘 기도



Misson **함글함글,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미주알 고주알’

우리말에는 뜻은 앞에만 있고, 장단을 맞추기 위해 뒤에 뜻이 없는 허사를 덧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주알고주알, 가시버시, 에구데구, 곤드레만드레, 다짜고짜, 뒤죽박죽, 부랴서라, 왁다글다글 따위가 그런 것입니다.

‘미주알고주알’은 ‘미주알’만 뜻이 있고 ‘고주알’은 없습니다. 미주알은 “항문을 이루는 창자의 끝 부분”이지만, 고주알은 미주알에 가락을 맞추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미주알고주알’은 “아주 사소한 일까지 속속들이”라는 뜻의 어찌씨입니다. ‘가시버시’도 ‘가시’만 있고 ‘버시’는 없습니다. 가시는 아내를 뜻하는 앞가지(접두사)이지만, 버시는 아무 뜻이 없이 가시에 가락을 맞추는 것입니다.(남편을 뜻하는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시버시’는 “부부”를 낱잡아 이르는 한 낱말입니다. ‘곤드레만드레’도 ‘곤드레’만 있고 ‘만드레’는 없습니다. ‘뒤죽박죽’도 ‘뒤죽’만 있고 ‘박죽’은 없고, ‘부랴서라’도 ‘부랴(불이야)’만 있고 ‘서라’는 없습니다.

이정에 기자

새교사 대학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2007년 가을 새 교사대학이 10월 21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기차게 시작되었다. 3시 30분부터 중예배실에서 시작될 예정이었던 교사 대학은 이미 교육지원부가 준비한 따뜻한 차와 간식, 환영의 미소

와 섬김으로부터 이른 시간 시작되고 있었다. 전체 6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새 교사대학(기초교사교육-3주, 신입교사교육-6주)은 전체 10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 담임목사님과 교육목사님, 그리고 각 교육부서의 교역자들의 강의로 진행되는데, 교사대학의 첫 날 강의의 주제는 ‘기독교교육이란 무엇인가?’ (박원호 목사),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고등부 유성훈 목사)의 내용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박원호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기독교교육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과 열정, 비전 등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 유성훈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근거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진행될 새 교사대학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함께 모여 배우고 기도하는 교사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해 본다.

임경순 전도사

안수집사회최세미나

건강관리를 위한 작은 시작

안수집사회에서는 10월 21일 주일 오후 3시 박건 안수집사의 갱년기 여성 건강 강좌를 열었다. 박집사는 여성 전문의의 해박한 전문 의학 지식으로 소홀하기 쉬운 여성 건강에 대해 세밀하게 강의 했다. 육체와 정신 운동, 자기 몸에 맞는 체중유지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조절, 여성에 특히 필요

한 칼슘 복용으로 인한 골다공증예방 및 치료, 살아가면서 필요한 먹거리를 소개했다. 강의 후 참석한 많은 교인들이 그동안 무관심했던 건강상식을 다시 일깨우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안수집사회에서는 전문직에서 근무하는 강사를 모시고 다양한 교양강좌를 계획하고 있다.

권승환 안수집사(1-17)



건강 상식

• **권장하는 음식** (당뇨 등 성인병 예방을 위한 음식)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 해조류, 특히 콩음식, 견과류, 잡곡류

• **피해야 할 음식** (발암이 원인이 되어 피해야 할 음식)

흰쌀, 흰밀가루, 고열처리된 튀김 볶음 요리, 구운 요리, 인스턴트 음식, 가공음식 등은 위암의 원인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

• **정기적인 검진** (조기발견시 완치 기능을 증가)

유방촬영: 40세 이전에는 2년마다, 40세 이후에는 매년 실시
위내시경: 1~2년마다 대장검사: 5년마다

골다공증: 1~2년마다
혈압측정, 혈액검사: 수시로

4교구 수양회

낯설었던 분들과도 가까워질 수 있던 시간



10월 20일(토)4교구 야외 기도회가 양평 십자수 기도원에서 열려 많은 교구 식구가 모여 기도회와 교제를 위한 귀한 시간을 보냈다. 지난 여름 수련회 이후 따로 모여 만나기 어려웠던 교구 식구들이 함께 모인 것이다. 교구식구들을 만난다는 들뜬 마음에 아침식사용으로 준비한 떡을 빠뜨렸다. 교회에 도착해서 버스를 보는 순간 생각나서 급하게 다시 집에 왔다가 가고 정신없이 출발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공기는 더욱 시원하게 느껴지고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와 잣나무 향이 어우러져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먼저 교제 시간에는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외우는 어려운 과제를 하느

었다. 집에 오는 길에 더덕 오리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 돌아 오면서, 교회 밖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의 사귀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시간을 마무리 지었다. 송용미 집사 (49)



제10기 중보기도 세미나

기도가 바로 사역입니다.



사람의 손은 여러 기능을 담당한다. 노동의 손, 사랑의 손, 협력의 손, 도박의 손, 비난의 손, 무책임한 손, 이 모든 손의 표현 중에서 중보기도를 위해 높이 든 기도의 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손도 그 기도 손에 포함되기를 바랬다. 기도에 빚진자, 그 빚을 갚으려 했지만 내 자신이 부끄러움이 많고 연약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두려웠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담대함을 강의와 기도로 느낄 수 있었다.

10월 25일 목요일과 27일 토요일 중보기도 세미나가 열렸다. 30여명의 교우들의 참석하여 주님의교회 기도 용사가 되기 위해 훈련받았다. 강의를 듣는 교우들의 눈빛은 매우 강렬했다. 부족한 사람에게 영혼을 채워주시고 기도할 힘이 없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도 깨닫는 듯했다. 강의를 들으며 중보기도는 사랑과 행함이 있어야하며 기도가 바로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신 것도,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 것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중보기도팀은 주일 1-4부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도록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를 위해 실시간 기도하고 있다. 또한 환우들과 호스피스 사역 기도, 교회 행사, 선교, 교회 각 부처와 청소년 집중 사역을 위해 전념하여 기도하고 있다.

신형섭 기자